| 불자 세상보기 |

甲·乙 아닌 '同·幸' 관계를



성태용
前 건국대 철학과 교수

'갑질' 강자가 약자에게 행한 횡포
약자가 불평·비굴 머무는 것 '을질'
'갑·을질' 만연하면 사회엔 희망 無

대형 프랜차이즈 등 만연한 갑질들
사회·경제 정의 추락하고 있는 증거
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미담
아직 한국사회엔 희망있음 보여줘

너와 내가 있어 세상이 움직인다는
상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 내가 살 세상을 그려 본다면, 내가 그 세상의 어떤 곳, 어떤 위상을 가지고 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살고픈 세상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아니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할까?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물음들을 던질 줄 알아야 우리의 이상적인 미래를 이루는 힘이 형성될 수 있다.

전혀 그러한 의식이 없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만 생각이 머물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불평과 원망만을 늘어놓고, 유리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누리는 것이 하늘이 부여한 것인 양 나댄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끝없이 양극화로 치닫는 비극적인 미래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전체적인 반성이 없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연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갑을관계에서의 갑질, 을질이다. 을질이라는 말이 성립하느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지향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무조건 불평과 분노에만 휩싸여 있다던가, 자존감을 잃고 비굴한 태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을질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강자의 횡포이기 쉽다. 많은 경우에 약자는 힘이 없기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힘들고, 강자의 횡포에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관심과 보호 속에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이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우려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요즈음 들어 많이 보도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갑질 사태만 하더라도 과연 이 사회에 경제적 정의가 어디까지 실추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따듯한 소식도 있다. 얼마 전 서울 석관동 코오롱아파트의 70대 주민이 아파트 경비초소에 에어컨 5대를 기부한 일, 작은 일이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크다. 최근 돌아가신 부인을 기리며,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경비원 동생들이 고마워서"라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아니다. 경비원 동생들이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단지 그분 한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아파트의 용역계약서는 쌍방을 갑, 을이 아닌 동(同), 행(幸)으로 기재한다고 한다. 그런 전체적인 바탕 위에 그분의 따듯한 마음이 꽃핀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지향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신분계급과 서열을 완전히 벗어난 사회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지배하는 사회야말로 가장 극악한 사회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런 사회는 바로 갑질이 만연하고, 을 또한 앞에서 말한 을질에 머물러 함께 사는 사회를 그려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위치에 있던, 각각이 모두 사회의 공동 목표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깨져 모든 것을 서열화하며, 유리한 위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천부적인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착각하면? 그것이 극악한 갑질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을질(?)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양극화의 종말은 뚝 부러져나가는 역사인 것이다. 그러한 역사야말로 너에게도 나에게도 비극이다.

당신과 나는 귀천이 없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어느 누구도 없으면 우리 세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상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社說

한국불교를 위한 불편한 충고

지난 6월 30일 통도사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여름워크숍에서는 불편하지만 새겨들어야 할 논문이 발표됐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이날 워크숍에서 한국불교 승단의 '파승(破僧)' 원인을 분석·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을 내놨다. 그가 분석한 한국불교 갈등 원인은 승단 내 경제적 불평등과 선거 제도, 문중 중심 문화, 정치 계파였다.

평등한 분배를 모토로 한 승단에 사유가 발생하고, 이는 스님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 시킨다. 실제 스님과 사찰 간 양극화 현상은 최근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시주물은 욕망과 집착의 대상이 됐고, 평등해야 하는 승가에서는 불평등이 생겨났다"는 조 교수의 지적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적절하다.

함께 제기된 선거- 문중·계파로 이어지는 종권 창출 순환에 대한 비판도 귀기울일 부분이다. 다수결과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는 '문중·계파 안배' 인사를 통해 소수와 반대편을 철저하게 소외시킨다. 직선제든 간선제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 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문중·계파가 존재한다면 한국불교 내부의 파열음은 잦아들지 않는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학자의 비판이 일부분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한 번은 되짚고 공론화해야 할 문제이다.

'탈종교화' 현상은 기실 제도 종교의 이탈을 의미한다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수행과 명상이 대중화, 산업화 되면서 나온 현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가 세속화되며 자신의 역할을 못한 점도 한 가지 원인이 될 것이다. 결국, 이 불편한 충고는 다시 불교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되짚자는 화두이다.

염불만일회 염불결사 20년에 부쳐

원효 스님은 〈아미타경소〉에서 염불수행에 대해 "입으로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면 즉시 삼계를 벗어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물며, 아미타부처님을 찬탄하여 읊조리며, 극락의 불보살님과 장엄을 관하는 수행은 어떻겠는가"라고 평가했다.

염불은 파자를 해보면 그 뜻이 명쾌히 나온다. '염'(念)은 '이제 금(今)' 자와 '마음 심(心)' 자로 지금 이 자리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금 마음에 집중해 부처가 되는 수행인 것이다. 많은 대중들이 쉽게 현재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이기에, 불교가 타락하거나 쇠퇴했을 때마다 염불수행을 통한 쇄신결사는 있어왔다.

수많은 염불수행결사 중 전국염불만일회가 20년째 진행하는 염불결사가 눈길을 끄는 것은 단순히 활발한 정진 행보 때문만이 아니다. 현재 불교계가 처한 위기 상황 속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기 때문이다.

전국염불만일회는 100일마다 모여 염불철야정진을 연다. 그 염불 방법도 불교계에서는 드문 방식이다.

매회 대회마다 3~500명의 인원이 꾸준히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불교는 변화해야 한다. 법회에 가면 지루한 의식, 지루한 법문에 실망하는 불자들이 많다. 매회 똑같은 법회에 매번 참가하는 어르신 불자들만 법당을 지킨다.

이제는 대중들이 신명나고, 감동받는 의식, 법회가 진행돼야 한다.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불교 의식의 길이 바로 전국염불만일회의 염불수행 속에 보인다. 전국염불만일회의 끊임없는 수행정진이 불교의 또 다른 변화를 이끌길 기원한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우리는 독사(毒蛇)를 보았다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1995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攻殼機動隊: Ghost in the shell)'는 오래된 철학적 물음을 진중하게 던지는 명작 중 하나다. 재미와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나'란 존재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육체와 정신은 어떤 관계인가 등 많은 사유를 이끌어낸다.

작품의 배경은 2029년, 신체는 기계로 얼마든지 대체가능하고 인간들의 두뇌는 전자화 되었다. 이름하여 전뇌화(電腦化). 그런데 이 전자두뇌는 비유하자면 머릿속에 소형 컴퓨터 단말기가 들어 있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지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로서 상상하기 그리 어렵지 않은 시나리오.

그렇다면 정보화시대의 어두운 단면, 어떤 뛰어난 해커가 사람들의 전자두뇌를 헤집고 다니며 다른 사람의 기억을 나에게 주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몸과 외모는 어제의 나와 똑같다고 해도 과연 나는 '나'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새로 이식된 기억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작품에는 결혼 후 사랑하는 딸을 둔 평범한 미화원인 한 남자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의 기억은 해킹되어 이식된 가짜임이 밝혀진다. 결국 그는 모두 만들어진 가짜 기억이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지만,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다. 한여름 밤의 꿈처럼, 어차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임을 알았는데 그는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는 등 감각기관을 통해 신체 바깥의 어떤 대상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틀림없이 내가 느낀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향기 등을 가졌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과연 그럴까?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독사와 마주친다면 누구나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것이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심장은 쿵쾅쿵쾅 뛸 것이고, 뱀을 몹시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날이 밝은 다음날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을 지나면서 지난 밤 내가 본 것이 새끼줄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간의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짐은 물론, 그 상황이 황당해 너털웃음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본 것은 실제 독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것을 '독사'로 그렸다. 그로 인해 내 마음에 공포가 자리 잡고, 그에 따라 내 몸과 마음은 영향을 받아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즉 바깥의 대상이 새끼줄이었던 사실과는 달리, 나 혼자 그려놓은 독사라는 이미지는 매우 실체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곧 매우 리얼(real)한 현실이 되었다. 독사는 없었지만 말이다.

그래서 불교는 말한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기쁨, 분노, 슬픔, 공포 등의 감정은 분명히 우리 바깥의 어떤 대상을 인식한 결과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인식한 그 대상이 정말 분노와 공포를 느끼고 기쁨을 유발하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세상을 반영한 결과물이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의 '독사'를 없애고 나면 나를 웃고 울리던 것들에 초탈한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거라 가르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삶의 무한 지혜, 香향이 세상에 나왔다!! 화제의 신간



허공천(虛空天)
향운계(香雲界)에서
향수(香水)의 비가 내려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가 향수대해(香水大海)를 이룬다.

향1권 기품, 승화, 사유, 이성(理性)의 향기
향2권 지혜, 정신, 마음, 지성(知性)의 향기
향3권 생명, 차(茶), 초월, 꽃잎의 향기를 담았다.

박명숙(德慧林)저 / 향 1권 336쪽 / 향 2권 328쪽 / 향 3권 320쪽 / 정가 각 23,000원

완전한 지혜의 세계, 密밀이 세상에 나왔다!!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